

선부른 화해 거부하는 고통의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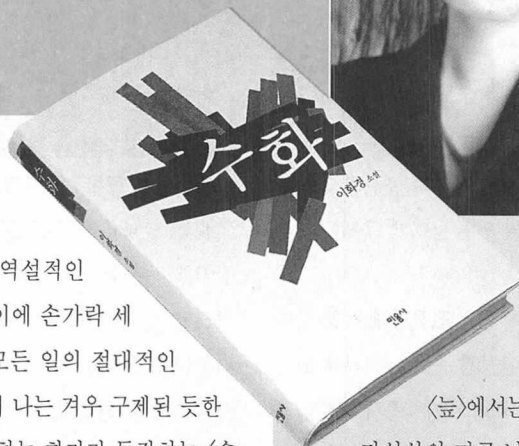
《수화》 펴낸 이화경씨

이화경씨의 첫 소설집 《수화》는 고통의 아이러니를 꿰뚫는 빛나는 통찰력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절망을 담았다. 평균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나 비틀리고 불안정한 관계 속에 놓인 다양한 세상살이의 곁을 그린 그는, 그럼에도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선부러 화해를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이화경씨(민음사 사진제공)

민음사/B6/212면/7000원



“해산 뒤의 산후우울증 비슷한 감정이랄까요. 그래서 첫 책이 나왔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한마디씩 던지지만 먹먹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죠. 이제까지 작품 속에 몰래 꺼묻어뒀던 제 치부들이 난장에 벌어진 기분입니다.”

이화경씨(38)가 자신의 첫 소설집 《수화》를 펴낸 소감이다. 그는 1997년 《세계의 문학》에 〈둥근잎나팔꽃〉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는데, 5년이 지나서야 첫 책을 ‘해산’ 했다. 이 책에 실린 표제작 《수화》를 비롯한 여섯편의 단편들은 모두 ‘고통’의 문제에 깊이 천착하고 있다.

고통은 영혼의 근수를 재는 거울 같은 것

“대단히 주관적인 편견입니다만, 고통은 영혼의 근수를 재는 거울 같은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고통(상처 혹은 통증)은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냐’ 하는 실존적인 물음을 폭력적으로 들이밀죠. 그러면서 이전까지 편하게 몸담고 있던 세계를 무척 낯설게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는 이번 작품집에서 상처로 고통받는 다양한 인물들의 생의 단면을 핏빛처럼 선명하게 그려낸다. ‘거짓 희망’과 ‘가짜 위안’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고통’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응시했다. 고통을 역설적으로 그려내는 데 주력했을 뿐 선부른 화해의 몸짓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화해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예요. 사람들은 성인이 돼도 많은 시간을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죠.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해를 말하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

라 위험하기도 해요.”

고통에 관한 이런 역설적인 태도는 열아홉의 나이에 손가락 세 개를 잃고 “갑자기 모든 일의 절대적인 절망에 눈을 뜨으로써 나는 겨우 구제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는 화자가 등장하는 〈수화〉와 또 다른 작품 〈생이 가렵다〉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난다. 〈생이 가렵다〉에서 그는 선천성 고통무감각증에 걸린 아들 때문에 번민하는 아버지의 환통을 그리고, 그 대척점에 무통증으로 자기 손가락을 물어뜯어 핏방울로 그림을 그리며 아들을 등장시킨다. 그는 이런 ‘환통’과 ‘무감각증’의 대비를 통해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환기시킨다.

세상살이에 비친 다양한 삶의 곁 표현해

“우리 사회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가정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만연해 있습니다. 불안정한 인간이 모여 사는 모든 조직이 적당히 불화하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며 사는 게 당연한데 말이지요. 이제는 가족 밖의 낯선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가족주의가 좀 헐거워졌으면 합니다.”

그는 가정이 결코 상처받은 인간들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춰낸다. 그의 이런 인식은 등단 작품 〈둥근잎나팔꽃〉부터 시작됐는데, 그는 이 작품에서 가족의 ‘감옥’에 갇혀 자아실현 욕구를 상실한 여성 ‘나’가 억압의 사슬을 끊고 출구를 모색하는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았다.

〈눈〉에서는 탈출을 꿈꾸며 마흔 다섯살의 미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화자가 등장하고, 〈음력 십삼월〉에서는 첫 아이를 연탄가스 중독으로 잃어버린 후 모든 인연을 끊고 공양주 보살이 된 여자, 그리고 부모의 불화로 절에 맡겨진 사내아이를 통해 가족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이렇듯 비틀리고 불안정한 관계에 주목하면서도 자신이 유별난 자의식과 감수성을 지닌 사람은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오히려 어떤 신체적 특징이나 제스처만으로도 작품 한편을 구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존한다.

“드러내놓고 말할 대단하고 특별한 체험은 없지만, ‘허구라는 투명한 위장막이 얼마나 교활한 자기노출 전략이며, 소설은 정신분석과 마찬가지로 언술화함으로써 엑소시즘을 얻는 살풀이가 아니겠냐’는 어느 평론가의 말은 제게도 유효한 전언입니다.”

그는 이 작품집을 통해 세상살이에 비친 다양한 삶의 무늬들을 빚진 내면 묘사와 속도감 있는 문체로 표현했다. 그가 다음에 선보일 책은 진한 페이스스가 느껴지는 작품, 능청스런 익살과 삶의 아이러니를 감싸안는 여유가 엿보이는 작품이 될 거라고 한다. — 박옥순 기자